

## [ 시티 &amp; 피처 ]

## 글로벌 실버산업 한 눈에 본다

세계 실버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08 광주국제실버박람회'가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다.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29일까지 열리는 이 박람회에는 스웨덴과 영국, 독일, 일본 등 국내·외 140여개 사가 400여개 부스에 ▲고령친화용품 ▲실버차량 ▲실버금융 ▲실버의료 및 기기 ▲실버의류 및 식품 ▲실버로봇 등 최첨단 고령친화산업용품 등을 전시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복지용구 홍보관'과 지식경제부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현대자동차와 대우버스, 오토피 참여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복지차량전시관 등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정체홍보관도 설치돼 고령친화산업용품과 정책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광주국제실버박람회 오늘 DJ센터서 개막

국내외 140여개社 로봇·차량 등 전시

세미나·일자리 박람회·건강 검진도

보관도 설치돼 고령친화산업용품과 정책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올해로 4회째인 이 박람회는 아시아 최초로 세계적인 전시연합인 UFI(The Global Association of the Exhibition Industry) 인증을 획득, 국내에선 독보적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해외 7개 국에서 30여개 업체가 참가신청을 마쳤으 며,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참가해온 일본의 대표적인 노인회관인 간사이실버서비스협회에서도 15개 회원사가 참가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하는 다양한 국제 세미나도 열린다. 일본 오사카시립미술관 캔, 연세대 이연숙 교수 등이 참여하는 한국주거학회 세미나에서는 노인들의 자립형 주거개발을 논의하고, '제2회 국제노인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 세미나'에서는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전문화·표준화·선진화와 한국형 모델 정립을 모색한다. '노인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제10회 노인보건·복지 세미나와 광주·전남 호스피스대회도 개최된다.

참가업체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고령친화용품 산업체와 CJ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 및 요양병원 구매 담당자간 상담회,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용품 설명회도 진행된다.

센터측은 행사기간 중 광주시와 공동으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참가 노인들에게는 한방, 안과, 치과, 종합검진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무등산 서석·입석대 내달 개방

입산 통제 8개월만에…등산로 등 자연친화적 정비

정비 공사로 인해 지난 4월부터 전면 통제됐던 서석대·입석대 등 무등산 주상절리(柱狀節理)대가 8개월여 만인 다음달 중순께 개방돼 연말연시 시민들의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주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소장 임희진)에 따르면 주상절리대 정비사업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어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개방 시기를 다음달 중순께로 앞당길 계획이다. 사무소 관계자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을 위해 서석대와 입석대를 찾는 시민들이 많이 몰릴 것을 감안해 개방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5일부터 장불재~

입석대~서석대에 이르는 0.9km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국비와 시비 11억2천500만원을 들여 1.6km의 탑방로를 정비하고 2개의 관망대와 안내 및 해설관 15점을 설치해왔다.

탑방로의 경우 돌과 나무 등을 이용 자연친화적으로 지형과 식생을 복원했고, 전연기념물인 제465호인 입석대와 서석대에 탑방객들이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관망데크를 설치했다. 데크의 기초는 콘크리트 대신 자

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의 뿌리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에코파운데이션 공법을 적용했다.

특히 그동안 입석대에서 서석대를 거쳐 다시 입석대로 내려와야했던 동선을 입석대~서석대~(군부대)으로, 중봉3거리~서석대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시 관계자는 "주상절리대 정비는 지난 해 4월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용역설계를 거쳐 한 경친화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광주·전남 4개 도서관

### 전국 우수도서관 선정

광주남구문화정보도서관, 순천 기적의 도서관 등 광주·전남 4개 도서관이 전국에서 우수한 도서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서관정보정책위와 문화체육부가 지난해 전국 2천319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등 8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남구문화정보도서관, 순천시립도서관연향관, 순천기적의도서관, 광주보문고가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광주남구문화정보도서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건물과 점장서·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교도소 도서관 중에서는 광주교도소가 장관상에 선정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개관

26일 광주시 서구 풍암생활체육공원에 문을 연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열람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 면적 1천323㎡의 이 도서관에는 시청각실과 기획전시실, 어린이 열람실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시 소상공인에 600억 긴급 지원

### 박 시장 "5+2 광역경제권 반드시 재검토 돼야"

광주시가 글로벌 경제위기와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60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민생경제 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6일 확대간부 회의에서 "내년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라며 "소상공인에게 긴

급자금 500억~600억원을 지원해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민·관이 참여하는 '민생경제 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도 사업을 1~2월에 조기 발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시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기업체,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서민경제 대책을 적극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 시장은 정부의 '5+2 광역 경제권' 개발구상과 관련, "우리 호남에 피해가 있는 희망 없는 정책"이라며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반드시 정부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남구청은 '그린 시티' 환경관리 총리 표창

광주시 남구청이 '제3회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 시상식'에서 '그린시티'에 선정됐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그린시티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역량을 평가해 환경관리기반과 환경시책이

우수한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

남구청은 그동안 중점시책으로 추진해왔던 그린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유안근린공원 조성사업, 제석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푸른길공원 조성사업, ISO14001(국제환경인증) 도입 등에 대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국제보청기

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뜻경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첨단 3,000명**

**11 27목 28금 김수희**

**12 11목 12금 설운도**

**호박 나이트 OPEN 풀 광주첨단·뚝스존열**

**부강천국 365일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불이 보이는 꿈에 그리던 나이트가 첨단상륙!!**